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천만관광 임실 실현 적극 돕겠다”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김 지사 시군 방문 - 임실

도민과의 대화서 직접 소통
“KTX 임실역 정차 등 공감”
로템하우스 찾아 노고 격려
임실시장서 물가 현장 살피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슬로건으로 시군방문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28일 임실군을 찾아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심민 군수 등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8일 “천만관광 임실 실현과 2025년 임실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실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임실군이 전북을 넘어 전국의 관광명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지난 10년간의 놀라운 변화에 심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임실군민의 단합된 힘이 만들어 낸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방문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민생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도정과 임실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김 지사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과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브리핑룸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정에 대한 여론과 분위기를 경청했다.

임실군 출입기자단은 여론 수렴을 위한 김 지사의 방문을 환영하며 1965

년 섬진강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넘게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문제와 지난해 관광객 유입 급증에 생활인구 850만명을 넘어섰고, 35사단과 호국원, 옥정호,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급증 등에 따른 △KTX 임실역 정차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북에 오면 꼭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을 가 보시고, 올 때는 꼭 임실치즈 선물을 사가시라고 한다”며 “임실은 정말 전국적인 관광지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KTX 임실역 정차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실방문의 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군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정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함께 도전하면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도정경성(挑戰竟成)’ 정신으로 전북특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군민들도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예산 1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옥정호 개발 현안 해결 △축사시설 악취 저감 방안 등을 건의하며 김관영 지사의 협조를 구했다.

도민과의 대화를 마친 김관영 지사는 임실군 신령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템하우스를 방문해 장애인

인의 재활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임실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와 오찬을 갖고 민생물가 현장을 직접 살폈다.

김관영 도지사는 견어물, 생선, 과일 등을 직접 구매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한 뒤 임실군 사회단체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을 방문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임실군 발전과 임실군민의 행복,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행복을 향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자원봉사자 180명 신청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 1차에 모집 초과 달성
내달부터 두달간 교육 이수 후 10월 본격 활동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전북대학교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자원봉사자 모집에 180여 명이 신청해 정상 마감됐다.

도내 대학생과 도민의 높은 관심 속에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모집은 당초 목표 160명을 웃도는 신청자가 모였다. 이는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높은 기대와 참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집된 지원자는 선발 과정을 거쳐 9월까지 소양 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10월 본격적인 대회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VC 포럼 및 세미나 등 공식 프로그램, 기업전시관, 안내데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보조, 행사장 안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에 지원한 한 대학생은 “국제대회 자원봉사자를 처음 신청하여 무척이나 떨린다.”면서 “해

외에서 오는 한인 CEO분들과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좋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는 해외 한인 CEO와 국내 경제인의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 판로지원을 위한 행사다. 올해 행사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첫 대회이며,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MBN이 주관한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도민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 소양 및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대회 성공에 기여하고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 지사, 31일 파리 출장길

내달 3일까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협력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올림픽 기간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하기 위한 프랑스 파리 출장길에 오른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기간 중인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전북 선수단을 격려하고 유네스코 본부 방문, 재외동포 간담회, 한국의 날 행사 참여, 도 투자기업 방문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1일 첫 일정으로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한지가 인류 무형유산으로서 보존될 가치가 충분함을 설명하고 한지의 인류무형유산 등

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재외동포 파리주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2일에는 완주 테크노밸리 2 단지에 수소연료탱크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OP모빌리티사를 방문해 투자 현황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짧은 일정이지만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산림휴양시설 이용객 안전 확보

전북자치도, 여름 휴가철 맞아 31일까지 특별 안전점검

보건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해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12개소, 산림욕장 19개소, 치유숲 3개소, 유아숲체험원 16개소, 숲

속 야영장 2개소로 총 52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이 해당된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산림휴양시설 내 숙박시설, 물놀이장, 화장실, 취사장, 침구 등의 다중이용시설 보건위생 상태와 전기, 가스시설 및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노후시설 개선 사항, 배수로 정비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기 상황별 재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비상대책, 안전교육 실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분야는 즉시 개선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제2회 장수쿨밸리 페스티벌

2024.8.02.(금)~8.11.(일)

변암면 방화동자연휴양림일원